

우석대 안미현 직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표창

우석대학교 안미현 직원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미현 직원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 우수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 장학재단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장학 및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안미현 직원은 장학금 지급률 향상을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과 이공·인문·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안미현 직원은 "앞으로도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진행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내년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31명이 참여, '수요자 중심의 1차 보건의료 및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능력 함양'을 목표로 안옥희(간호학과) 교수가 지도에 나선다.

교육과정은 기본이론(6주일)·전문이론교육(4주일)·보건진료소 현지실습(6주일)·보건소 및 의료원 임상실습(10주일) 등 총 26주 진행된다.

안옥희 교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해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1차 진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전라권역 책임기관에 선정돼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제일건설, 남원시에 성금 2000만원 기탁

남원시는 제일건설(대표 윤여웅)이 남원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시를 방문해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지난해 8월 남원시 수해복구를 위해 성금 3000만원, 2020년 11월 남원 오뚜기(주)에 퍼스트시티 경본 주택 오픈 기념 수익금으로 마련된 백미 10kg 200포와 연탄 11,200장(환가액 1,600만원 상당)을 기탁하는 등 남원시를 위해 후원을 하고 있다.

윤여웅 제일건설 대표는 "남원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성금을 기탁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탑건설, 남원시에 성금 2000만원 기탁

남원시는 28일 유탑건설이 남원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시를 방문해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탑건설 정병동 부회장은 "해당 사업지는 유탑건설이 남원에 처음 진출하는 주택 사업인 만큼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원 내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주거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유탑건설은 감리, CM, 설계, 시공 임대, 운영, 호텔 레저 등 건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건설사로, 과거에도 장학금 기부, 불우이웃 돕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억 원의 릴레이 성금 기탁 등에도 동참한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전주시의회 김원주 의원, 주민복지증진 공로 감사패



전주시의회 김원주(도시건설위원장, 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이 최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원산파크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주민들은 감사패에서 "김 의원은 아파트 대수선 사업 추진에 몰입양면 헌신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는데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의원은 각종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신흥고 김진용 동문 장학금 1억원 기탁

지난 28일 전주신흥고 79회 졸업생인 김진용 동문(일산요요치과의원)이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교 생활 3년 동안 매 학기 학교 장학금을 받으며 고학으로 학업을 마친 김진용 동문은 이로서 훗날 모교와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회상하겠다는 학창 시절의 다짐을 지키게 됐다. 기증식 당일에는 신흥고 3학년 재학 중인 강민 학생이 서울대 치의대에 합격하며 김진용 동문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직속 후배가 돼 장학금 기증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한편 신흥고 졸업생들은 후배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신흥고 동문회에서는 재단법인 희현장학회 결성해 매년 120여 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졸업생 개인 및 동기회의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2월에는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전주연탄은행에 기부물품 전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8일 대학본부동 2층 총장실에서 전주연탄은행에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득이 기부단체에 전달로써 나눔행사를 대체했다.

이날 대학이 기부한 물품은 연탄 9,900장과 쌀 55포대(10kg) 등 총 1천만원 상당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수령 대상지는 전북 지역 소외계층 88가구에 에너지약계층으로 구분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세대, 다문화세대, 한부모가정 등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주교대에 따르면 올해도 전달식으로 나눔행사를 대체했지만 추이를 보아 자원의 교직원과 전주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예정하고 있다.

김우영 총장은 "코로나19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지역



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말 따뜻한 온정 나눔

전주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조지영)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사랑 나눔을 위한 라면과 휴지 등 생필품(200만 원 상당)을 효자동(동장 박현영)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라면, 휴지 등)은 효자동 관내 홀로 어르신과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지영 대장은 "추위에 힘들게 겨울을 나실 어르신과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희망의 손길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화산동·해바라기봉사단, 청소년 행복꾸러미 나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주민센터(동장 유은례)와 해바라기봉사단(회장 박인숙)은 겨울철을 맞아 28일 '사랑의 선물꾸러미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떡국떡, 컵떡볶이, 참치캔과 함께 제철과일, 비타민 등으로 구성된 이번 선물꾸러미는 관내의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50세대에 전달됐다.

박인숙 회장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정성스레 준비한 물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은어린이집, 금암1동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전북은행어린이집(원장 채영미) 원아들은 28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고사리손으로 모은 이웃돕기 성금 약 15만 원을 금암1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전북은행어린이집 원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훈훈함을 더했다.

전북은행어린이집 채영미 원장은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용기 있게 전달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자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이웃돕기로 나눔 실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情)을 나누고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온누리상품권 총 24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남원지사는 매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해 복지시설 위문방문, 농촌임산물 돕기, 농촌집 고쳐주기, 환경정화 행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별도의 위문활동은 생략하고 물품 전달 행사로 진행하였다.

한편 남원지사는 나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남원시, 노인복지협회, 사회복지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따뜻한 남원공동체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앙동 지사협, 독거어르신 변기안전손잡이 지원

전주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효정)와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유창성)은 28일 관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40가구를 대상으로 '변기안전손잡이' 설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동 동네복지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주제일로타리클럽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르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설치할 지원할 예정이다.

김효정 위원장은 "중앙동은 지역연계간 독거노인 및 1인 세대가 많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도 힘써 중앙동 지역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